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2)

- 읽을 말씀 마 5:17-20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 는 의미와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③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이 완전하다고 증언합니다(삼하 22:31, 시 19:7).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한다’ 는 것의 의미는 더욱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법만 폐해지지 않았다고 믿는 분들은 율법은 본래 완전하지만, 랍비들이 곡해한 것을 예수님이 온전한 의미로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 가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 라고 하신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하나의 통일체로 본 것이 아니라 별개의 것으로 보셨습니다. 즉 “선지자들” 을 율법에 근거해서 설교하고 외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자들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완전케 하다’ 는 것은 무엇보다 율법이 그림자로 예표한 것과 선지자들이 한 예언의 성취를 뜻합니다.

이에 대해 R.T.프랜스는 「마태복음」 에서 “선지자들뿐 아니라 율법도, 즉 전체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실현시키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성경 전체를 철저히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라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것은 곧 구약 예언의 성취를 뜻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율법을 반대하거나 폐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배경과 본문 뒤의 문맥(21-48절)에 따르면 다른 의미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기 때문에, “완전하게”의 반대는 “폐하러”입니다. 폐하러의 원어 ‘카탈뤼오’는 신약성경의 용법에서 ‘폐지하다’ ‘헛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게”를 율법을 폐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오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21-48절에 의해 강하게 뒷받침됩니다.

따라서 “완전케 한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와 율법의 계명들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 두 가지를 뜻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해의 근거 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더글라스 헤어의 「현대성서주석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기독교인들이 모세의 율법보다 우선시 할 메시아적 토라(율법)가 된다.”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율법’ 하면 모세의 율법밖에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폐해졌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켜야 할 율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은 지금도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고전 9:21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율법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율법과 아무 상관없다고 믿어 왔다면, 그동안 속아온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의 존재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앞에서 살펴본대로, 1.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 2. 율법의 계명들에 대한 예수님의 온전한 해석,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결과 그리스도의 율법을 구성하는 내용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율법은 복음을 포함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율법을 야고보서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약 1:25)**”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한 “**온전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한 그리스도의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문맥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21절)**”과 일치하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진리의 말씀(18절)**”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단지 복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 뜻을 온전히 드러낸 계명들에 대한 가르침들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율법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예수님이 그 뜻을 온전히 드러낸 계명들에 대한 가르침만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진리의 말씀**” 즉 복음과 일치한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그 표현(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자체가 증거입니다.

야고보는 온전한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 계명들은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즉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할 뿐,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의식법을 이룬 복음까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에서 나오는 능력, 즉 성령님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야고보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다음 장에서 “**자유의 율법(약 2:12)**”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케 된 종이 아닌 자유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다음 세 구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갈 5:1)**”,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갈 5:13)**”,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갈 6:2).”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약하면,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이 곧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자신이 완성하신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5:17-48, 7:21-27 특히 마 5:20참조).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도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약 2:12).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대에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옥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토록 중요한 그리스도의 율법이 존재함을 깨닫고 계속하여 강조하여 왔지만, 이것을 설교하거나 강조하는 신학자나 설교자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야 몇몇 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을 보고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지만 율법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의무가 있으며, 또 그 법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과 7장 21절은 정확히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뒤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7:23).**”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은 법을 어긴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폐해졌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지켜야 할 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법”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려 오신 예수님이 완성한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 예외 없이 지옥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거나 사역만 열심히 하지 말고 반드시 그리고 철저히 그리스도의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 나눔과 적용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우리는 반드시 이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것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누어 봅시다.